

#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

— 夜宴의 <악가삼장(樂歌三章)>을 중심으로\*

신 경 숙\*\*

## <국문초록>

이 글은 19세기 궁중 연향의식에서 사용된 우리말 악장을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러 궁중 연향의식들 중에서 야연(夜宴)에서 한글 악장이 사용되었다.

둘째, 야연의 악장들은 모두 <악가삼장(樂歌三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이들 작품들은 모두 세 편 가곡이 하나의 짹을 이루고 있다.

넷째, 이들 작품은 모두 임금 또는 세자의 작품들이다.

**핵심어** : 궁중연향, 악장, 야연, 악가삼장, 가곡, 작, 공연, 정재, 여령가자, 삼장

## 1. 본고의 방향

본고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의식'에서 여전히 '한글 악장'이 사용되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2002년 교내학술지원금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성대 국문과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 한글 악장이 불려지는 儀式은 두 경구가 있다. 하나는 외연의 〈가자와 금슬〉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야연의 〈악가 삼장〉의 순서라고 한다.<sup>1)</sup> 본고는 이 중 야연의 〈악가삼장〉 순서에서 사용된 한글 악장을 다루고자 한다. 야연의 〈악가삼장〉은 ‘야연의식’에서, ‘차비인 여성가자’에 의해, ‘주빈이 잔을 들기 직전’에, ‘연이은 세 곡’의 진행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지는 절차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의식의 이 순서에 ‘한글악장’이 놓였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본고는 〈악가삼장〉의 순서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한글 악장’ 작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도달을 위한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밟을 것이다. 첫째는 〈악가삼장〉의 양식화, 정례화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악장’은 儀式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詩歌이므로, 의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양식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계속되는 의식들에서 정규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례화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앞선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악가삼장〉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악장 작품을 발굴 확인 할 것이다. 아직 〈악가삼장〉의 한글 악장에 대한 논의가 없기에, 본고는 작품론이 아닌 작품 자체를 찾아 소개하고, 이것이 〈악가삼장〉의 절차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정하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다.

## 2. 〈악가삼장〉, 정례화된 악장

### 2-1. 19세기 진연의궤의 〈악가삼장〉 기록들

〈악가삼장〉을 기록하고 있는 19세기 진연의궤는 모두 8권이다. 〈악가

---

1)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국제어문』 29집, 2003. 12. 이하 본고의 〈악가삼장〉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 따른다.

삼장>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 의궤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악가삼장>의 한글 악장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료는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 〈표 1〉 19세기 진연의궤에서 <악가삼장> 기록들

##### 〈표 1-1〉 1829년 『(기축)진찬의궤』

연향목적	왕(순조)의 40세, 즉위 30주년 기념
儀式명칭	자경전 야진찬
「儀註」기록 <sup>2)</sup>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聖人之曲(羅古舊曲三絃三竹大鼓拍板合奏) <sup>3)</sup>
歌者이름 <sup>4)</sup>	歌差備二: 蓮心 香心

##### 〈표 1-2〉 1848년 『(무신)진찬의궤』

연향목적	대왕대비(순조비) 육순, 왕대비(익종비) 望五 기념
儀式명칭	통명전 야진찬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女伶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聖人之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玉伊 彩鳳

##### 〈표 1-3〉 1877년 『(정축)진찬의궤』

연향목적	대왕대비(익종비) 칠순 기념
儀式명칭	통명전 야진찬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壽母千歲人之

- 
- 2) 모든 진연의궤에는 「儀註」 항이 있다. 의주는 한 진연의식에서 거행되는 여러 개별의식들의 진행순서를 기록한 일종의 매우 상세한 진행표이다.
  - 3) 이하 「의주」 기록들에서 ( ) 부분은 본문에 삽입된 「잔 주( 곧 細註 )」들이다. 본 문에는 괄호가 없으나, 「잔 주」 임을 밝히기 위해 괄호를 사용했다.
  - 4) 진연의궤에는 의식에서 참여하거나 활동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밝혀주고 있다. 음악인들의 명단은 따로 「工伶」 항에 정리되어 있다. 이 항을 참고하여 야연에서 악가삼장을 부른 歌者, 곧 歌差備 명단을 찾아 밝혔다. 가자에는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남성은 여향에서 초빙된 가객들이고, 여성은 여령 중에서 뽑아서 사용했다.

曲(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鳳心 月色

〈표 1-4〉 1887년 『(정해)진찬의궤』

연향목적 대왕대비(익종비) 필순 기념  
儀式명칭 만경전 야진찬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祥雲曜日之曲(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雲香 玉眞

〈표 1-5〉 1892년 『(임진)진찬의궤』

연향목적 왕(고종)의 望五, 즉위 30주년 축하  
儀式명칭 강령전 야진찬  
「儀註」기록 1.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壽母千歲之曲(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왕에게 작을 올릴 때  
2.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壽母千歲之曲(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왕비에게 작을 올릴 때  
歌者이름 歌差備四: 玉眞 紅梅 蘭珠 眞珠

〈표 1-6〉 1901년 『(신축)진연의궤』

연향목적 고종 탄생 50주년 축하  
儀式명칭 함녕전 야진연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長生寶宴之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錦娘 山月

〈표 1-7〉 1902년 『(입인4월)진연의궤』

연향목적 고종 耆老所 입사 축하  
儀式명칭 함녕전 야진연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長生寶宴之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哭月 月色

〈표 1-8〉 1902년 『(임인11월)진연의궤』

연향목적	고종 望六旬 및 즉위 40주년 축하
儀式명칭	근명전 야진연
「儀註」기록	執拍女執事引歌者 階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長生寶 宴之樂歌三章
歌者이름	歌差備二: 花鳳 山紅

이상과 같이 19세기에 야연이 거행된 연향 의식들에서는 언제나 〈악가삼장〉이 불렸다. 이 자체가 이미 〈악가삼장〉이 19세기를 관통하며 연향 악장으로 정례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의궤 상으로는 〈악가삼장〉을 불렀는지 알 수 없는 단 하나의 경우가 발견된다. 곧 첫 기록인 〈표1-1〉의 1829년 기축년 『진찬의궤』가 그것이다. 그러나 ‘악가삼장’이라는 기록만 없을 뿐, 당시 「의주」의 나머지 기록들은 이후 모든 의궤의 내용들과 동일하다. 뿐만아니라 女性歌者 두 명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1829년 야연의 이 순서에서도 역시 〈악가삼장〉을 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2. 공연방식으로 본 정례화

〈악가삼장〉의 작품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곧바로 樂章이라 명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시적 사용이거나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라면, 의식에서 불려진 노래일지라도 곧바로 儀式의 필요를 위해 ‘양식화’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악가삼장〉이 ‘하나의 악장 양식’으로써 발견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 양식이 일회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례화’ 되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기서는 19세기 야연에서 나타나는 〈악가삼장〉의 기록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악가삼장〉이 공연되는 방식을 「의주」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한다. 공연방식이야말로 의식에서

의 ‘양식화’ ‘정례화’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연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표1〉의 「儀註」 기록이다. 「의주」는 공통적으로 「의주」본문의 기록과 ‘세주(표1에서는 괈호안)의 기록’의 두 부분을 갖고 있다. 이제 이 기록단계들을 따라서 공연방식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첫 단계인 「의주」본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848년 현종14년 진찬 의궤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집박여집사가 여령가자를 이끌고 계단에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여집사가 부복하고 휘를 들면 축성인지곡을 연주한다.<sup>5)</sup>

위와 동일 내용들을 8권 의궤들에서 찾아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앞의 〈표 1〉에서 「의주」기록만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 〈표 2〉 〈악가삼장〉을 기록한 「의주」의 본문들

1829년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聖人之曲
1848년	執拍女執事引女伶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聖人之曲
1877년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壽母千歲人之曲
1887년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祥雲曜日之曲
1892년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壽母千歲之曲 (왕)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壽母千歲之曲 (왕비)
1901년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長生寶宴 之樂歌三章

5) “執拍女執事引女伶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祝聖人之曲” 『진찬의궤』 (무신), 「의주」‘통명전야진찬의’

1902년 4월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長生寶宴  
之樂歌三章

1902년 11월 執拍女執事引歌者 陞階就座 女執事俯伏舉麾 奏細吹作太平萬歲  
之樂歌三章

집박여집사가 歌者를 이끌고 계단에 올라가 노래부를 무대에 올라서고, 다시 여집사가 부복한 후 노래 시작을 알리는 휘를 들면 ‘하나의 곡’을 연주한다는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등장부터 공연 절차 모두가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연주 ‘曲名’과 둘째, 1901년, 1902년 4월, 11월의 기록에서 ‘細吹’라는 반주형태의 추가 언급이다. 이 중에서 ‘細吹’는 다음에 설명할 細註와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잠시 뒤로 미룬다. 그렇다면 첫 단계 기록에서 달라지는 것은 ‘곡명’ 뿐이다. 곡명이 다르다면, 당연히 연주 곡도 다르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곡명은 실제 곡명이 아닌 雅名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즉 일종의 별칭인 셈이다. 그래서 때로 아명만으로는 실제 곡명을 모를 경우도 많다. 바로 위의 밑줄 친 곡명들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아명이 동일한 곡명인지, 서로 다른 곡명인지는 그 실제 곡을 알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위의 雅名으로 된 곡들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주 내용을 세주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細註’ 기록을 통해 이를 아명으로 된 곡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주의 내용은 대개 아래 인용과 거의 같다.

삼현 삼죽 장고 박판이 합주하고, 삼장을 노래한다.<sup>6)</sup>

동일한 내용들을 8권 의궤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래

6) 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진찬의궤』(무신), 「의주」‘통명전야진찬의’

의 것들은 앞의 〈표 1〉의 「의주」 기록에서 괄호 안에 기록한 '細註'만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3〉 〈악가삼장〉을 기록한 「의주」의 細註들

1829년	羅古舊曲三絃三竹大鼓拍板合奏
1848년	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1877년	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1887년	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1892년	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왕) 羅古舊曲三絃三竹杖鼓拍板合奏 樂歌三章 (왕비)
1901년	[奏細吹作長生寶宴之樂歌三章] <sup>7)</sup>
1902년 4월	[奏細吹作長生寶宴之樂歌三章]
1902년 11월	[奏細吹作太平萬歲之樂歌三章]

이 세주들은 바로 雅名으로 된曲의 구체적인 연주형태를 밝혀 놓은 것이다. 즉 당시 곡들은 모두 삼현, 삼죽, 장고, 박판의 반주로 세 편의 노래가 불렸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삼현 삼죽 장고 박판'의 앞에 '羅古舊曲'이라 명시한 기록이 네 번이나 나타난다. 19세기에 옛 신라 곡이 연주되었다기 보다, 성악곡의 반주로 '삼현 삼죽 장고 박판'이 사용된 것은 신라 때부터 있어온 아주 오래된 양식임을 말해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기록은 오래된 옛 문헌의 인용이다. 즉 『증보문헌비고』 「악고」와 『삼국사기』에서 옛신라 노래의 형태를 이와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고문헌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기에 세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옛 문헌 기록까지 인용한 까닭은 19세기 악연의 발

7) 1901년 1902년 4월, 1902년 11월 진연의 악연의식 「의주」에서는 細註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 ] 부분은 세주가 아닌 본문이다. 다만 이 부분의 내용은 그 이전 진연의식들의 세주 부분과 같은 내용이다. 비교의 편리를 위해 여기서 인용하고 대신 [ ] 표를 사용했다.

달로 인해 시도되는 <악가삼장>이라는 양식의 연원을 올려, 이제 새로 이 본격화되는 이 양식의 격을 높여 보고자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삼현 삼죽 장고 박판이라는 모든 악기의 등장이 아니라, 絃과 竹과 枝鼓과 拍板으로 이루어진 합주방식이다. 이런 악기들로 이루어진 연주를 일반적으로 ‘細吹’라고 한다. 따라서 세취 반주에 따라 성악곡 세 곡이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細註로 밝힌 셈이다.

실제 1901, 1902년 4월, 11월 기록에서는 옛 문헌을 인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접 ‘奏細吹’라고 밝히고 있다. 옛 문헌을 인용하며 설명할 때는 본문이 아닌 ‘세주’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옛 문헌 인용이 없어졌으므로 세주도 필요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1901년 1902년의 「의주」에서는 <악가삼장>의 공연을 세주가 아닌 본문 안으로 수렴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악가삼장>은 絲竹과 枝鼓로 이루어진 ‘세취 반주’에 따라 ‘노래 세 곡’을 연이어 부르는 동일한 연주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노래는 모두 남성이 아닌 여령가자에 의해 공연되었다. 이처럼 <악가삼장>은 그 절차와 연주형태 등 공연방식 자체가 동일한 형태로 양식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양식은 19세기로부터 광무연간에 이르기까지 정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악가삼장>은 바로 야연 의식에서 하나의 고정된 양식으로 정례화된 악장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 3. <악가삼장>의 한글악장 작품들

<악가삼장>은 여러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우선 세취반주로 부르는 연속적인 세 곡 노래였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말 시가 형태였을 것이다.

즉 선초 악장 이후 더이상 보이지 않았던 한글 악장작품을 19세기에도 여전히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악가삼장〉이 양식화되고 정례화된 악장이었으니, 이 악장 작품은 매 夜宴 의식마다 동일 작품이 거듭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하나의 작품만 발견해도, 그것이 곧 모든 夜宴儀式用 〈악가삼장〉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매 의식마다 새롭게 창작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같은 장르형식으로 새로 창작한 작품들을 매 의식마다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모든 발견이야 쉽지 않겠지만, 풍부한 악연용 한글 악장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들은 풀어가기 위해 직접 〈악가 삼장〉의 악장들을 찾아나서기로 한다.

그러나 진연의궤들을 통해서는 이들 작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진연의궤들은 표기문자로 한자만을 사용하기에 한글악장은 수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악장 작품들은 또 다른 경로로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당대 한글 문건들을 발견해 내는 일이 된다. 만약 당시 의식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 문건들이 존재했었다면, 그 안에서 〈악가3장〉의 존재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의궤의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당시 적지 않은 한글 문건들이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의궤에는 각 관청간 주고받은 공문서들을 정리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공문서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筵記와 儀註들을 ‘診書(한글)와 眞書(한문)’ 두 가지 표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궁중 여성, 궁밖 초빙 여성, 女伶들을 위해서는 診書로, 궁중 남성과 參宴諸臣들을 위해서는 眞書로 의식과 관련한 참고 문건들을 각각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훌기 의주 악장 등 의식에서 참고하기 만들어진 한글 문건들은 그 수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1887년(고종24) 진찬의식을 위해 진찬소에서 교서관에 내려보낸 공문에서는 ‘진찬소에서 사용할 樂章冊을 20건’이나 만들어 올리라는 기록

이 보인다.<sup>8)</sup> 그런가 하면 平市署에 내려보낸 공문에서는 ‘진찬소에서 사용할 諺書로 된 致詞 笏記 등을 위해 각 廈市民 중, 언서를 잘 쓰는 사람 여섯명을 등대’시키라는 기록도 보인다.<sup>9)</sup> 따라서 당시 작성된 諺書 흘기나 첨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한글 악장을 만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진연 時 만들어진 각색 ‘언서 문전’들을 찾아본 결과 모두 세번의 진연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악가삼장>의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1848년, 1877년, 1892년, 1901년 연향에서 사용된 작품들을 찾아내었다. 앞의 <표 1>에서 정리한 8건의 <악가삼장> 중 4 건의 작품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발견한 네 건의 <악가삼장> 작품들 중에서 <악가삼장>이라고 자료에 명시된 것은 ‘1901년 야진연’의 경우뿐이다. 나머지 세 건의 작품들에는 그 양식名이 없다. 따라서 새로 발견한 이들 작품들이 과연 <악가삼장>인지는 다시 분석대상이 된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새로운 작품들이 <악가삼장>임을 입증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작품의 연대순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 3-1. 戊申(1848년) 진찬의식과 악가삼장

#### 〈작품 1〉 현종14년 통명전 야진찬의 악가삼장

「泰山高」

눕흘스 泰山이며 깁흘스 滄海로다 泰山과 滄海라흔들 聖德과 比흘손가  
발고 발근 日月이요 어질고 어진 雨露로다 日月과 雨露흔들 聖德과 갓흘손가  
어괴야 우리 王母聖德이야 形容기 어려웨라

8) 『진찬의궤』(고종24, 1887), 장서각 도서번호 장2-2876, 139쪽.

9) 『(정해)진찬의궤』 같은 책, 140쪽.

「麟鳳曲」

뉘라서 麟鳳이 貴타되고 賢良輔弼이 더 貴하고  
 景星慶雲이 剪타하되 時和歲豐이 더 剪홰라 朝廷清明하고 人民安樂하니 麟  
 凤星雲이 아니라도 時時處處 祥瑞로다  
 오흡다 이 祥瑞 능리기는 聖母님 덕이신가 하노라

「碧桃花」

碧桃花를 손에 들고 白玉盞에 술을 부어  
 우리 聖母께 비는 말솜 더 碧桃와 갓트쇼셔 三千年에 곳이 뛰고 三千年에  
 열만 맷져 곳도 無盡 열매도 無盡 無盡 無盡長 春色이라  
 아마도 瑤池王母의 千千壽를 聖母에게 드리고자 흐노라<sup>10)</sup>

이 작품들은 모두 세 가지 경로에서 발견된다. 첫번째는 임창순 교수 소장 필사본을 이상보 교수가 소개한 것이 있다.<sup>11)</sup> 두번째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憲宗 御製』가 있다.<sup>12)</sup> 세번째는 조황의 가집 『(이본) 삼죽사류』에 실려있다.<sup>13)</sup>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자료는 약간의 字句만 다를 뿐이다. 이 두 자료집은 공히 위에 소개한 작품 외에 「皇惟五章章二句」 「羽翠絲(縷縷金)」 「彩雲詞」의 세 작품을 함께싣고 있다. 이 중 「횡유」는 한시작품

10) 이 작품은 『가곡원류(국악원본)』 여창188번에 “在東宮 代理時上 純元王后 進饌宴 睿製 今雖不俗唱 錄於編次 以使後人 知翼宗之孝奉 己丑宴”라는 부기와 함께 실려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축연 야연은 순조를 위해 베풀어졌으므로, 聖母를 노래한 이 작품은 현종이 대왕대비를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더 신빙할 만하다.

11) 이상보, 「현종어제 악장문학에 대한 고찰」, 『명지어문학』10집, 명지어문학회, 1978, 5-9쪽.

12) 규장각 도서번호 상백 古818 Su77-1-2. 이 자료는 성무경(성균관대) 교수가 찾아내 필자에게 제공해주었다.

13) 필자는 『(이본) 삼죽사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세 작품을 심재완의 『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8)을 통해 출처와 작품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심재완의 『시조의 문헌적 연구』(세종문화사, 1978)의 「삼죽사류」 해설을 통해 확인했다.

이고, 「비취사」와 「채운사」는 현토체 작품이며,<sup>14)</sup> 나머지 위에 소개한 「泰山高」 「麟鳳曲」 「碧桃花」는 한글작품이다.<sup>15)</sup> 즉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 자료집 서두에는 「황유」의 창작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무신년 3월 27일, 대왕대비전 육순 경사와 왕대비전 사순 경사의 진연을 베풀 때에 왕께서 「황유」 오장장이구를 지으셨다.<sup>16)</sup>

곧 첫 작품은 무신 진연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신)진찬의궤』의 악장 작품들과 대비한 결과, 「皇惟」 「翡翠絲」 「彩雲詞」는 모두 당시 진찬에서 사용된 御製 樂章들 이었다.<sup>17)</sup> 의궤에는 이 중에서 현토체 작품인 「翡翠絲」 「彩雲詞」도 모두 한시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작품인 위의 「泰山高」 「麟鳳曲」 「碧桃花」는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다. 다만 첫째 둘째 자료집의 성격으로 보아 이들도 '현종 어제'임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악장인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악장 여부는 무엇보다 작품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당시 진찬의식이 대왕대비 육순과 왕대비 사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泰山高」에서는 “어괴야 우리 王母聖德이야 形容키 어려웨라”, 「麟鳳曲」에서는 “오흡다 이 祥瑞 능리기는 聖母님 덕이신가 하노라”, 「碧桃花」에서는 “아마도 瑤池王母의 千千壽를 聖母그게 드리고져 흐노라”라 하

14) 현토는 吏讀를 사용했다.

15) 한글작품이지만 조사와 어미부 분엔 이두를 사용했다.

16) 戊申三月二十七日 大王大妃殿 六句稱慶 王大妃殿 四句稱慶 進宴時 御製 皇惟  
五章章二句

17) 「皇惟」는 어제 진찬악장, 「翡翠絲」는 어제 야진찬 선창악장, 「彩雲詞」는 어제 야진찬 후창악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 모두 ‘王母 곤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찬양하고 있다. 결국 이들 세 곡도 모두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축하하기 위한 진찬에서 다른 악장 작품들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자료집은 바로 진찬의식에서 사용된 ‘현종의 어제 악장’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 6편의 작품들은 ‘어느 개별의 식’의, ‘어떤 절차’에서 사용된 악장들인가? 역시 당시 의궤의 「악장」과 「의주」 항목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皇惟」는 내진찬의식에서 제일 첫 작품으로, 「翡翠絲」는 야진찬 선창악장, 「彩雲詞」는 야진찬 후창악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한글 악장인 「泰山高」「麟鳳曲」「碧桃花」 세 작품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의궤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한글 악장 세 곡’을 ‘연이어’ 부르는 절차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바로 앞장에서 밝힌 아연의 〈악가삼장〉의 공연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악가삼장〉은 주빈이 작을 들기 직전에 극진한 공경의 예를 다하기 위해 부른다고 하였는데, 바로 작품의 내용이 거듭 주빈인 ‘王母’를 찬양하는 내용들로만 되어 있음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작품 1〉의 「泰山高」「麟鳳曲」「碧桃花」 세 곡은 ‘무신년 야진찬’의 〈악가삼장〉 절차에서 주빈인 대왕대비와 왕대비가 爵을 들기 전 그 지극한 경외의 예를 다하기 위한 노래로 사용된 한글 악장이다.

그러면 무신년 진찬의 〈악가삼장〉으로 사용된 이들 악장의 장르는 과연 무엇일까.<sup>18)</sup> 이들 작품이 19세기 제천의 향촌 사대부 조황의 개인 가집인 『(이본) 삼죽사류』에 수렴된 것으로 보아 가곡(시조문학)임을

18) 樂章은 궁중 의식용 시가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용어이지, 시가의 장르명이 아니다. 선초 악장의 경우, 우리말 시가, 경기체가, 한시, 혼토체 시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알 수 있다.<sup>19)</sup> 또한 『(이본) 삼죽사류』에는 이들 세 작품이 모두 가집의 맨 끝에 위와 같은 순서로 제목<sup>20)</sup>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sup>21)</sup> 이는 악장집이 아닌 일반 개인 가집에 실리는 경우도 이들 작품들은 언제나 세곡의 짹을 잃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즉 향촌 사대부에게 조차 이들 작품은 <악가삼장>의 한 뮤음 악장으로 분명히 인식되었던 것 같다. 또한 이 한가지 양식의 한글 악장이 세 개의 다른 자료집 형태로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한글 악장들은 비교적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2. 丁丑(1877년) 진찬의식과 악가삼장

#### 〈작품 2〉 고종14년 통명전 야진찬의 악가삼장

눕흘수 昊天이며 뜬터울샤 坤元이라昊天과 坤元인들 慈母에세 더흐시며  
눕고 놉푼 華崇과 河海라호들 慈母과 갓틀손가  
아홉다 우리 太母聖恩은 해아리기 어려웨라

康衢에 맑은 노론 | 며 南薰殿 和호 바름 太平氣像 알니로다  
大堯의 克明호신 峴德과 帝舜에 賢德이 아니시면 뉘라셔 玉燭春臺를 일우리요  
어고야 우리 太母聖德은 堯舜을 兼호오시니 東方堯舜이신가 흐노라

이 작품들은 『가곡원류』(하합본) 471번, 711번에 각각 만횡, 계락 악곡에 배치되어 있으며, 두 수 모두 “東朝丁丑七十進饌時 御製”라는 부

19) 조황의 『(이본) 삼죽사류』에 실려있으나, 앞의 두 자료집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는 조황의 작품이 아니다. 따라서 『(이본) 삼죽사류』의 작품 모두를 조황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삼죽사류』에는 없고 『(이본) 삼죽사류』에만 실려있다는 30 수 모두가 조황의 작품으로 의심시 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들 세 작품만큼은 현종의 작품이므로, 나머지들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20) 마지막의 「碧桃花」는 제목없이 작품만 수록되어 있다.

21) 각주 14번과 같은 절차로 이를 확인했다.

기라 달려있다.<sup>22)</sup>

‘東朝’란 정치에 관여하게 된 왕후가 일 보던 곳 또는 수렴청정하는 태후를 가르킨다. 『가곡원류』(하합본) 기록이 증언하는 것은, 위 두 수는 丁丑年 대왕대비의 칠순을 기념하는 진찬의식 때에 임금이 직접 지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도 “아홉다 우리 太母聖恩은 해아리기 어려웨라” “어괴야 우리 太母聖德은 堯舜을 兼호오시니 東方堯舜이신가 흐노라”라 하여 ‘大母 곧 대왕대비’에 대한 찬양과 축하 메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표 1-3〉에 의하면, 실제 1877년 정축 진찬의식은 대왕대비(의종비)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베풀어졌다. 『가곡원류』(하합본)의 기록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작품들은 정축 진찬의식에서 사용된 악장임을 알 수 있다.

역시 주빈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한글 악장이라면, 〈악가삼장〉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위의 두 수 외에는 정축 의식 때 불린 작품이 더이상 가집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글악장이라는 사실, 가곡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 御製라는 사실, 정축년에도 야연이 열렸었다는 사실 등이 앞의 현종 악장의 성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작품도 〈악가삼장〉의 악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작품이 세 수가 아닌 두 수뿐인 것은, 이 노래가 여향 가집에 수록되면서 악곡에 따라 배치되는 편집과정에서 한 곡을 놓쳐버렸거나 편찬자 관심의 정도에 따라 생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앞의 현종 악장의 경우처럼 악장책에 남겨졌다면 작품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축 〈악가삼장〉은 다른 형태의 자료집, 곧 악장책 같은 경우로 나머지 한 편이 더 발견될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다.

22) 『역대시조전서』(심재완, 앞의 책)에는 이들 작품을 ‘英祖’ 작으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 『가곡원류』(하합본)을 확인한 결과, ‘英祖’라는 작가 표기는 없었다.

### 3-3. 壬辰(1892년) 진찬의식과 악가삼장

〈작품 3〉 고종29년 강령전 야진찬의 악가삼장

睿製(壬辰) 樂歌詞

「福祿川至 一疊」

福祿이 川至하여 今年의 吉祥善事하도한다

玉簡寶牒으로 兩聖功烈을 並闡하고 瑞觴碧桃로 千秋慶節의 雙擎하여 다시  
금 八千歲爲春爲秋로 頌祝하오면서 年年豐登하여  
오날갓치 與民同樂하오리다

「共樂秋登 一疊」

百祿이 是總하고 兩慶이 並臻하니 昭代성典을 오날날 보리로다  
六宮和氣는 盡在春風이요 西野權聲은 共樂秋登이라 億萬蒼生이 熙熙皞皞하  
여 擊壤歌을 부르면서 願乎上願乎下하옵기를  
子孫昌盛하고 歲熟民滋로다

「聖恩頌 一疊」

山海가 崇淡타 旱여도 聖上恩澤 갓들손가 今年 兩慶은 國家의 罕有라 天保  
九如와 箕疇五福을 뉘 아니 頌祝하리  
허물며 愛日知年之忱이야 河海莫量

睿製(壬辰)

「萬世基 一疊」

開太平萬世基하니 金城湯池磐泰의 구듬이라 나라의 드문 慶事 年年 荐臻하  
사 寶疇望五句과 光御三十載一歲合慶하여 邦鎭이 鎮長하고 治化郅隆하시니 事  
曠今古요 歡溢區宇로다  
오흡다 有是德有是福이라 하니 우리 聖上의 이로온 말슴인가

「福祿川至 一疊」

福祿이 川至하여 今年의 吉祥善事하도한다

玉簡寶牒으로 兩聖功烈을 並闡하고 瑤觴碧桃로 千秋慶節의 雙擎하여 다시  
곰 八千歲爲春爲秋로 頌祝하오면서 年年豐登하여  
오날갓차 與民同樂하오리다

「共樂秋登 一疊」

百祿이 是總하고 兩慶이 並臻하니 昭代(日+成)典을 오날날 보리로다  
六宮和氣는 盡在春風이요 西野權聲은 共樂秋登이라 億萬蒼生이 熙熙皞皞하  
여 擊壤歌을 부르면서 願乎上願乎下하옵기를  
子孫昌盛하고 歲熟民滋로다

위 작품은 『樂歌詞』라는 제목하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sup>23)</sup> 첫 장에 '睿製(壬辰) 樂歌詞'라고 써어 있고, 이어서 작품 3수('福祿川至 一疊', '共樂秋登 一疊', '聖恩頌 一疊')가 기록되고, 다시 장을 새로이 바꾸어 '睿製(壬辰)'라고 한 후에 작품 3수('萬世基 一疊', '福祿川至 一疊', '共樂秋登 一疊')를 또 기록하고 있다. 세 수를 한 짝으로 하여 모두 6수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임진년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는 <표1-5>의 임진년과 일치한다. 임진년 행사는 고종의 望五와 즉위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잔찬이었다. 위의 작품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兩慶”('聖恩頌 一疊'), “寶疇望五旬과 光御三十載一歲合慶하여”('萬世基 一疊')와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은 임진년에 사용된 악장이다. 또한 睿製라 했으니, 세자인 순종의 작품이다.

또한 한글악장이면서 세 작품씩 짝을 이루고 있으며, 앞의 1848년, 1877년의 御製 경우처럼 여기서도 예제 작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야연의 <악가삼장>이다.

이 악장책의 제목을 <악가사>, 그리고 야연용 한글악장 세 곡을 <악가삼장>라 지칭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모두 ‘樂歌’라는 말을

23) 규장각 도서번호 가람 古811.05-y58a-.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악가'라는 용어가 『증보문헌비고』「악고」에서도 언제나 악장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악가사〉는 '악가'의 '사', 곧 악장의 노래가사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악가삼장〉은 '악가'인 '삼장', 곧 악장인 세 수 작품을 의미한다. 이처럼 〈악가사〉는 악장을 뜻하는 또하나의 용어 '樂歌'가 사용된 19세기 실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임진년 〈악가사〉에서는 세 수의 짹이 두 번이나 나타난다. 다른 〈악가삼장〉에서는 볼 수 업슨 사례이다. 그 이유는 임진년 야진찬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왕과 왕비'가 모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악가삼장〉은 기본적으로 주빈이 爵을 들기 직전에 올리는 노래이다. 임진년 『진찬의궤』 「의주」에 의하면 두 사람 주빈이 동시에 잔을 받지 않고, 왕이 먼저 그리고 뒤이어 왕비가 잔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악가삼장〉도 왕과 왕비에게 각각 올려졌다. 왕에게는 「福祿川至一疊」 「共樂秋登一疊」 「聖恩頌一疊」의 세 수가, 왕비에게는 「萬世基一疊」 「福祿川至一疊」 「共樂秋登一疊」의 세 수가 올려졌다. 노래를 부른 歌者 역시 다른 진연들과 달리 네 명의 가차비가 공연하였다.(표 1-5 참조) 그리고 이들 6수 작품 중 두 수 「福祿川至一疊」 「共樂秋登一疊」는 두 번 사용되었다. 실제 의식에서는 창작품 4수를 가지고, 그 조합에 의해 세 수씩 묶여서 사용했던 것이다.

24) 『증보문헌비고』「악고」편에서는 '樂歌'라는 용어를 宴享 외에 宗廟 諸祀 朝會 頃號 唐樂 享樂 軍樂의 노래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두루 사용하고 있다.

25) 아연은 보통 '주빈과 최고자리의 인물', 두 사람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회이다. 따라서 왕이 주빈일 경우 세자만이 자리를 같이하고, 대왕대비가 주빈일 경우 왕만이 자리를 같이한다. 그런데 임진년 당시는 주빈이 왕인데도, 아연에 '왕과 왕비'가 같이 참여하는 특색을 보인 의식이었다.

### 3-4. 신축(1901년) 진연의식과 악가삼장

〈작품 4〉 광무5년 함녕전 악진연의 악가삼장

#### 「綵衣 一疊」

帝舜衣裳 山龍翻織 天女機上五色실로

老來子班綵衣에 聖壽無疆繡를 노아

億萬斯齡에 오늘과 갓치 질기리로다

#### 「聖功 一疊」

聖功이 巍蕩호샤 大業中恢 區宇昇平

今年慶會는 千載罕有시니 懽欣抃祝이 匝域同情이로다

허물며 寸草春暉愛日之忱이야

#### 「昇平煙月 一疊」

康衢老人은 帝力を 전혀 잇고 昇平煙月에 熙皞自樂호니

壽域人民이 堯舜의 福이심을 네 아는다 모르는다

聖人 너부신 德이 天地 갓트심을 아마 모르리로다

위의 작품은 한글로 된 훌기, 곧 『여령정재무도흘기』에 기록되어 있다.<sup>26)</sup> 그런데 이 훌기에는 이 세 작품들 앞에 <악가삼장>이라는 양식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작품들 중에서 의궤에서 사용한 <악가삼장>이라는 양식 명칭을 직접 사용한 예는 『여령정재무도흘기』가 유일하다.

〈표 1-6〉에 의하면 당시 진연은 고종탄신 50주년 축하식이었다. 위 작품내용에서 “聖壽”(「綵衣 一疊」) “聖人”(「昇平煙月 一疊」)을 찬양하고 있는 점에서 ‘儀式과 樂章’ 내용이 일치한다. 그런데 다른 경우와 달리 이들 작품은 작가가 알려져 있지않다. 그러나 앞의 작품들 모두 어제 또는 예제였던 사실로 보아 위의 작품도 예제 곧 순종의 작품이 거

26) 『정재무도흘기』, 『여령정재무도흘기』, 한국학총서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98-299쪽.

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장르는 그 문학형식으로 보아 가곡이다. 역시 앞에서 소개한 〈악가삼장〉들이 가곡이었던 사실과 일치한다.

#### 4. 한글악장으로 써의 〈악가삼장〉 -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하나는 〈악가삼장〉이 양식화된 악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가삼장〉에서 사용된 작품을 발굴해내는 것이었다. 앞의 것을 위해 주로 진연의궤들의 기록을 분석하여, 〈악가삼장〉의 공연방식이 가자, 반주형태, 등에 있어서 하나의 고정된 양식이었음을 밝혔다. 동시에 이 양식은 19세기를 관통하며 연향의식에서 공연되었음을 밝혔다. 두번째 목표를 위해 작품을 찾아나선 결과 모두 네 건의 〈악가삼장〉 작품들을 찾아내었다. 첫 추정대로 모두 세 곡으로 이루어진 한글 악장이었고, 그 내용은 야연에서 주빈이 작을 마시기 직전 올리는 축하와 친양의 메세지들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악가삼장〉의 작품들이 발굴됨으로 얻어진 것은 그 이상이다. 우선 이들 한글 악장 작품들은 모두 御製 또는 睿製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 한글 악장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다수의 작품이 발견될 뿐더러, 조선전기 주로 文任들에 의한 악장 창작과 달리 후기는 대권자인 왕과 세자의 한글 악장이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특징을 발견했다.

둘째, 본고에서 찾아낸 작품은 모두 네 건이지만, 발견된 작품들이 모두 매 연향의식을 위해 그때그때 창작된 작품이라는 사실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악가삼장〉 한글 악장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이들 한글 악장은 모두 가곡(시조문학)이었음을 확인했다. 사 대부와 여향인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가곡이 악장으로까지 깊숙이 자 기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가곡은 公과 私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조선적인 클래식 성악곡으로 자리잡았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재와 같은 춤에 딸린 노래가 아니라, 순수 성악곡 공연 형태로 가곡이 악장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커다란 특징이라 하겠다.

넷째, 한글악장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후기 악장에는 한시 외에, 현 토체 한시도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와 마찬가지로 후기에도 한 시 현토체 악장은 여전히 연향의식에서 불렸던 것이다. 역시 하나의 사례로 미루어보다 또 다른 현토체 악장들, 또는 또 다른 형식의 악장들의 발굴을 과제로 얻었다.

### 〈Abstract〉

On the Akjang, the Korean Alphabet used verse at Court  
banquet in 19th century

Shin Kyung-Sook

In this thesis I tried to unearth some Korean Akjang, written and sung by Korean language, not by the form of Chinese verses.

In 19th century they used the Korean Akjang at Court banquet ceremony in Chosun Dynasty.

I had got four meaningful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as follow.

1. There are various banquets but they used Korean Akjang only at YaYeon, a sort of night banquet.
2. The Akjangs arranged at YaYeon are called Ak-ka-Sam-jang which means three songs at the banquet.
3. These Akjangs were usually composed of 3 pieces of Gagok, the Korean traditional vocal music, as one.
4. The Kings and princes wrote all the words of these music.

*Keywords* : Court Banquet, Akjang(a chapter of music), Ya-yeon (a night court banquet), Ak-ka-Sam-jang(Three songs), Gagok, Liquor glass, Public performance, Court dancing, Singing female, Three songs.